

[경제]

교역조건 사상 최악

원자재가 급등…3분기 지수 78로 전년비 14% ↓

수출품 100개 판값으로 수입품 78개 밖에 못 사

지난 3·4분기의 교역조건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3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에 따르면 순상품교역조건 지수(2005년 = 100)는 78.0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90.5에 비해 13.8% 떨어졌다.

3분기 지수는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1988년 이후 가장 낮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한 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뜻한다.

이 지수가 3분기에 78.0이라는 것

은 동일한 물량의 수출로 2005년에 100개를 수입할 수 있었다면 올해 2분기에는 78.0개만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악화는 수출단가지수가 115.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8% 올리었는데 비해 수입단가지수는 28.6% 상승한 148.4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홍경희 한은 국제수지팀 과장은 "순상품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은 국제 원유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라면서 "9월부터 국제원유 가격이 떨어진 만큼 4분기에는 교역조건지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맙겠다.

원유를 제외한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90.8로 작년 같은 분기의 95.4보다는 낮아졌다. 이는 교역조건악화가 전산업에서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3분기중 수입물량은 11.1% 증가했는데 비해 수출물량은 9.6%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뜻하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3분기에 106.6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 하락하면서 2006년 3분기(106.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현법제관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 대별 합산 과세 규정에 대해 위원 판결을 내리고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에 대해서 현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종부세 제도의 대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종부세법 7조에 들어 있는 인별 합산 규정은 당장 삭제해야 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 부분도 내년 말까지 개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번 현재 결과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수령 의결하는 방식으로 반영될 가능성 이 높다.

실제 지난 2002년 8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부합산 방식에 대해 현재가 위원 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관련 세법을 개정해 그해 12월 18일부터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가 종부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린에 따라 정부의 종부세 폐지 추진은 당분간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에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없애는 대신 재산세로 전환하고 단일 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를 체계로 바꾸겠다는 중장기 개편 방안까지 내놓는 등 사실상 종부세의 간판을 내리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혀놓고 있다.

따라서 종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제도 자체는 유지된 채 일부 소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사실상 명목만 남아있는 세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현재 결과로 인해 재산세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세제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현재 판결로 종부세수 감소폭이 커지면 재산세율을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는 만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 추가적인 부동산 세부담 완화 조치는 당분간 시행되거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모형 광엑스포 주제 전시관
보고 있다.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광주 건축·도시문화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2009년에 열릴 '광주세계광엑스포' 주제 전시관 모형을 살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0조 규모 채권 펀드 조성

전광우 금융위원장 "회사채·금융채 인수, 기업·금융권 자금난 덜어"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 펀드를 조성해 회사채와 금융채 등을 인수, 기업과 금융권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기관투자자들이 최근 채권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조성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이 펀드에 2조 원을 출자하며 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상의 금융채와 회사채, 여전·할부채 등을 인수한다.

정부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여신전문회사 가운데 대주주의 지원을 받기 힘든 회사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우량 기업의 수출기업 등이

발행한 회사채를 끌은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증권(CBO)도 인수한다.

전 위원장은 "연기금 등 민간 투자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을 통해 펀드가 매입하는 채권의 위험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외화유동성 160억 달러 지원

정부 17일부터 수출·입 애로 기업에 공급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달 17일부터 16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해 수출입금융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을 지원키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

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100억 달러 규모로 중소기업 대상으로 수출환어음에 담보로 외화대출을 시행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6개월 만기 대출인 이번

한국은행의 수출금융 지원은 중소기업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은행에 수출환어음 규모에 해당하는 외화를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은 경쟁입찰방식으로 거래를 통해 공급하기로 한 100억 달러는 별도로 신규 외화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향후 장기물 통화스와프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이트디스	전자제품 조립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15	062-956-0135
㈜대광밸레콤	매장관리, 판매 및 사무관리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6	062-606-8803
삼성MPS(주)	[광주]하나로텔레콤 인바운드 상담직 (SK브로드밴드)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16	061-651-2600
화인한전(주)	[총무부/무역부(일본어)]정규직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7	061-383-0345
동양생명(주)-본사	[롯데/CJ]소프트웨어개발자(남양현대화재)(기본120, 주5일)	고졸/경력무관	3000~3200	11/17	02-518-2769
튜닝아이	도색작업/일리스트 프린트 작업 담당 직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18	062-372-9002
화천기공(주)	화천기공(주) 인턴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9	062-950-1521
㈜HRN	[광주]SK텔레콤 114 고객상담원 정규직 여사원집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11/20	062-529-2671
㈜한우기공	품질검사 경력사원	고졸/경력3년	1800~2000	11/20	062-954-4369
거동건설(주)	본사 공무 건축기사 여직원 신입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0	062-364-0900
삼성화재(주)	자재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0	062-951-8001
도원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시설관리 남직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21	062-953-6393
㈜청하	정규직 회계팀 경력사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1/21	062-222-667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현재 판결, 부동산 세제 영향은

고가주택 세부담 줄고 재산세율 인상 가능성

국제 유가 22개월來 최저

WTI 배럴당 56달러

12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전세계 원유수요 전망을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WTI)는 전날 종가보다 3.17달러(5.3%) 내린 배럴당 56.16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07년 1월 이후 22개월래 최저치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의 12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날 종가보다 3.36달러(6%) 내린 52.35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는 종종 한때 배럴당 52.0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역시 2007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8개 선진국들의 에너지 정책 협의체인 IEA는 당초 하루 70만 배럴의 원유수요 증가 예상치를 30만 배럴로 낮출 것이라고 관련 소식통들이 전했다.

유가가 계속 급락하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차기 회의를 앞당겨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쇼크리 가셈 리비아 석유장관이 밝혔다. /연합뉴스

휘발유 1,400원·경유 1,300원

다음주 중 가격 하락 전망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하락에 발맞춰 다음 주중으로 국내 주유소 판매 평균 휘발유값이 ℓ 당 1천400원대로, 경유값은 ℓ 당 1천300원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정유업체에 따르면 일선 주유소에 확인한 결과, 매주 수요일 밤 12시부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GS칼텍스는 12일부터 각 주유소에 공급하는 목표가격을 휘발유는 ℓ 당 1천460원에서 88원 인하한 1천375원으로, 경유는 ℓ 당 1천424원에서 35원 낮춘 1천389원으로 각각 내렸다.

SK에너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다른 정유사들도 GS칼텍스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에서 휘발유와 경유 공급 목표가격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의 공급가격 인하가 실제로 시장에 적용되는 내주 중에 일선 주유소 판매 평균가격이 휘발유는 ℓ 당 1천400원대로, 경유는 ℓ 당 1천300원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사들이 목표 공급가격을 인하한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석유소비가 감소하면서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연합뉴스

또 금융시장 불안

미 실물경기 침체 영향…코스피 1100 붕괴

미국 증시 급락과 실물경제 침체 등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증시는 5일 만에 1,100선 아래로 내려앉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눈앞에 두는 등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효과를 모조리 반납했다.

1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5.42포인트(3.15%) 떨어진 1,088.44로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6일(1,092.22) 이후 5일 만에 1,100선이 무너진 것으로,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와 뉴욕 증시 급락 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닥지수도 11.69포인트(3.62%) 하락한 311.55로 마감돼 사흘째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증시는 미국발 악재로 급락세로 출발한 뒤 연·기금의 매수세에 힘입어 그나마 낙폭을 줄였다.

국내·외 증시 불안은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2.0원 급등한 1,391.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주 만에 1,400원 돌파를 눈앞에 두는 것으로, 사실상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전 상황으로 복귀했다.

/최현기자 choice@kwangju.co.kr

식품산업 150조 규모로

2012년까지 4조 투자 일자리 15만개 창출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4조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식품산업 규모를 현재보다 50조원 많은 150조원으로 키운다.